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개발 지원

전북대,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호남권역 주관
가족회사 협력 네트워크·R&D 수행 능력 등 인정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술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단장 송제호 교수)은 종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의 호남권역 진단·기획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의 아이디어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협력과 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권역별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전북대는 가족회사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뤄져 있고 이를 통한 R&D 수행 능력 등을 인정받아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은 보다 내실있는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공학컨설팅센터를 신하에 두고 있다.

사업단은 권역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 중 1단계(2개월/과제당 500만 원) 지원으로 50여개 내외의 진단·기획과제를 모집하고, 전북대 이공계 교수진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해 2단계(6개월/과제당 3천만 원) R&D 과제로 25여개 내외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제호 산학협력중점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과 혁신 등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가진 우수한 네트워크와 인프리를 활용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과 전주대학교는 20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이호인 총장을 비롯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교육청-전주대 교육발전 힘 모은다

지역인재 육성 등 업무협약

전북교육청과 전주대학교는 20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이호인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

이날 협약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등교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종합교육 및 고등교육 상호 협력 △교수·학습·교육 실습과 교육봉사 지원 및 교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수업 운영의 협장성 및 전문화를 위한 상호교육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상

호협력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환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전주대학교가 교육 공동체로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인 총장은 "앞으로 양 기관은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전북 성장동력산업 제조인력 양성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생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장)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산업 제조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무료)으로 전라북도 성

교육내용은 ▲제조업 생산관리 이론과 실무 ▲현장개선 3정 5S ▲생산시스템의 이해 ▲행복한 경제활동을 위한 재무설계 ▲현장교육 등이다.

이유에 센터장은 "직업교육훈련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특히 성장동력산업 제조인력 양성교육은 전라북도 미래 신산업 분야 선도 사업으로 우수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에 축지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 그룹과의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 협약 체결로 교육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경우 월 3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체육회, 체육시설 문 다시 열어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체육회관 내 헬스장과 스위시장 등 체육시설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들 체육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도 체육회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독 방역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도 비치했다. 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입장 시 발열체크와 출입자 명단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동복과 수건 등

은 개인 지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온조절실(시우나)과 정수기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며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 수와 운동시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운동 전·후 가급적 친목모임 활동을 하지 않도록 이용객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체육시설은 재개했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으만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감 공약관리위원 공모

공약 이행 평가·도민의견 수렴창구… 남·녀 22명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18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교육감 공약사항의 합리적 관리와 이행 및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약이행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약관리위

원 37명 중 22명을 외부인사로 채울 예정이며 남녀 각각 11명씩 총 22명이다.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6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발표는 6월 26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함성인문학 온라인 인문강좌 후기 공모

원광대 HK+지역 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 온라인 인문강좌를 진행하는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온라인 인문 강좌 후기 공모를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원광대 HKplus 함성인문학TV'를 통해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제공된 인문강좌 '인문백제3'에 이어 후속 강좌로 '인생인문학'을 진행 중인 지역인문학센터는 개설된 두 가지 온라인 인문강좌를 듣고 이메일(region7293@naver.com) 또는 우편(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생활과학대학 1층 HK+ 지역인문학센터)으로 강좌별 내용 요약 및 듣고 난 감상 소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대, 전북 산학관 커플링사업 설명회 대성황

군산대학교 지역기반 융합소재 인력 양성사업단은 최근 사업단 참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코로나 위기로 대학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설명회 개최가 조심스러웠으나, 설명회 장소 방역과 개인 안전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였고, 비대면 강의에 맞추어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설명회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했다. 설명회는 사업단의 설립 목적과 다양한 전공실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진행하였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전라북도와 대학교, 도내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관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취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인력 양성사업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